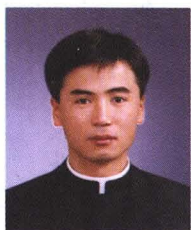


연중 제 28주일 2007년 10월 14일 (다해)

강론 ...

영혼이 병든 사람들



최중수 신부
(팔복 성당 주임)

예수님의 주변에는 늘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소외된 병자들이 많았다. 예수님을 병자들의 벼로 보는 관점에는 병자에 대한 우리의 편견과 비난, 동정과 안쓰러운 눈길을 객관적으로 보자는 관용이 숨어 있다. 병자의 소외된 삶을 떠오르게 하는 한 편의 시.

〈전라도길〉 -소록도로 가는 길-

가도 가도 붉은 황톳길 / 숨막히는 더위뿐이다. /

낮선 친구 만나면 / 우리들 문둥이끼리 반갑다.

천안 삼거리를 지나도 / 쭈세미 같은 해는 서산에 남는데 /

가도 가도 붉은 황톳길 / 숨막히는 더위 속으로 쫓겨가리며 / 가는 길
신을 벗으면 / 버드나무 밑에서 지가다비를 벗으면 / 발가락이 또
한 개 없어졌다. / 앞으로 남은 두 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

가도 가도 천리, 먼 전라도 길.

나환우 시인인 한하운씨의 대표적인 시 '전라도길'이다. 하늘이 내린 천형이라 여겼던 병자들, 친구와 이웃들과의 단절은 물론 천륜인 부모와의 인연도 끊어지는 형벌이었다. 그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폐렴을 앓듯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질병을 앓는 병자에 불과하다.

소록도, 그곳은 유형지였다. 부모와 가족, 고향과 친구가 그리운 사람들의 수용소였다. 나환우들이 만든 정원에는 서너 그루의 나무들이 한데 모여 한 그루의 나무를 이룬다. 아버지와 어머니 나무, 누나와 동생의 나무들이다. 서산의 노을이 물들고 아버지가 그림자나 어머니가 보고 싶으면 자기가 심어 놓은 나무아래 앉아 고개를 떨구고 남몰래 울었던 것이다.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 가족으로부터도 격리되어야 했던 사람들. 눈썹이 빠지고 코가 문드러지고 손가락과 발가락이 잘려나가 선한 눈빛이 아니고서

는 눈을 돌리고 싶은 사람들. 그러나 그들의 가슴은 따뜻하고 마음은 한없이 선량하고 그들의 신앙은 나병이라는 육체적 형벌을 통해 부활한 신앙이었다. 눈물과 기도 속에서 피어난 맑은 영혼의 꽃이었다.

몸은 성하지만 마음과 영혼이 병든 사람들, 어쩌면 나환우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다. 얼굴이 일그러진 나환우들보다 마음과 정신이 일그러진 사람들이 그러할 것이다.

남과 북이 갈린 우리 민족, 분단된 국토로 인해 정신도 병들었는지 모르겠다. 분단병을 치유하기 위한 진통이 언제쯤이나 끝이 날까. 2008년 북한과 미국의 수교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친북좌파'를 운운하는 시대착오적인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그 후보에게서 분단병을 치유하는 길이 멀고도 험한 길임을 본다.

“예수님,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느님 아버지! 분단병에 걸린 우리 민족에게 통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숲머리 생각



같이 걷는 한걸음.....

nadabge

한병기(프란치스코)

하느님의 현현(顯現)

최 용준 신부
뉴욕 S.I 분당 주임



“나 이제 물을 터이니, 알거든 대답하여라. 네가 나의 판결을 뒤엎을 셈이나? 너의 무죄함을 내세워 나를 죄인으로 몰 작정이나?” (욥 40,7)

하느님은 세상을 고요 속에 두고 자유롭게 하셨다. 생겨난 그대로가 조화요 움직이는 것이 찬미의 소리다. 인간이 아우성치지만 앉았다면 하느님은 쉬고 계셨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시끄럽고 떠들썩하다. 모순과 억울함이 많다고 끊임없이 호소한다. 하지만 그분은 좀처럼 나서지 않으신다.



하느님께서 인정하시던 욥이었다. 마귀가 시샘하며 시험을 요구했던 욥이었다. 하지만 그는 죄를 짓지 않았다. 모든 것을 앗아간 재앙도 뺏속까지 찾아든 고통도 그에게서 찬미의 소리를 뺏아진 못하였다. 그런데 욥의 이내에도 한계가 있었던지 입을 열어 부르짖기 시작하였다. 자신에 대한 저주로 시작된 그의 외침은 결국 친구들과의 논쟁으로 치닫고 말았다.

사실 죄가 없었다. 사람들은 죄 때문이라고 했지만 그의 고통은 죄 탓이 아니었다. 그러나 무죄를 변호할수록 오히려 커갈 뿐 괴로움은 줄지 않았다. 하느님의 심판이 아니면 끝날 것이 아니었다. 욥은 하느님께 부르짖었다. 억울함과 괴로움을 호소하였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느님을 두고 시비를 가렸다. 죄 없는 이를 짓밟으시는 하느님은 의

로운 분이 아니시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느님께서 나타나시고 말았다. 침묵 속에 계시는 하느님인 줄 알았는데 거동을 하시고 말았다. 그분의 음성이 폭풍처럼 들려온다. “나 이제 물을 터이니, 알거든 대답하여라. 네가 나의 판결을

뒤엎을 셈이나? 너의 무죄함을 내세워 나를 죄인으로 몰 작정이나?”

하느님은 스스로가 답이신 분이시다. 거니시는 소리만 들어도 사람은 숨고 찾기만 하여도 두려움에 떠다. 하느님 앞에 드러난 인간의 존재란 알몸을 드러낸 수치밖에 없다. 욥이 대답하였다. “부질없는 말로 당신의 뜻을 가리운 자, 그것은 바로 저였습니다. 그리하여 제 말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티끌과 잿더미에 앉아 뉘우칩니다.”(욥 42,3)

결백을 호소하던 것이 결국 무례함을 낳고 말았다. 사람들은 억울하다고 곧잘 하느님을 원망하나 그것이 죄인줄은 모른다. 욥이 의로웠으며 아직 하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의로움은 밝혀서 풀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참고 순종할 때에만 완성되는 덕이며 천상에서만 밝혀지는 신비이다.

그림 : 박종구 (바드리시오)

사랑의 향기 그리고 형제애

보통 사람들에게서 볼 수 없는 사람의 향기, 낮은 향기, 따뜻한 온기 같은 것을 느끼게 해 주는, 이주노동자들을 위해 자원 봉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요즘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민족들이 들어와 함께 살아가는 다민족 사회가 되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하였다는 어느 일간지의 기사는 우리나라가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93%인 37만 7천명이 단순 기능 인력 근로자로 부모, 형제들과 떨어져서 머나먼 이국땅에서 고통과 애환을 겪고 있다.

언어가 다르고 풍습과 생각이 다른 그들이 우리 생활에 적응하기란 이만 저만한 고통이 아닐 것이다. 다른 민족에 대한 이해심도 적은 이 땅에 생활하면서, 우리의 이웃이 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활동하는 자원 봉사자들의 사랑의 향기를 전하고자 한다.

이주 노동사목을 담당하여 밤낮으로 애쓰시는 신부님과 수녀님, 노동자의 집에서 노동 상담과 한글지도 및 한방의료 봉사 등을 하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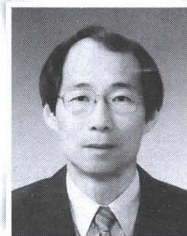
봉사자님들,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을 위해 치과 치료를 무상으로 해 주시는 전북대 치과대학 요셉회 회원님들, 치과 치료를 돕기 위해 통역과 차량운행 등을 위해 바쁜 일상을 뒤로 하고 봉사하시는 분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워할 때 그 곁에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사람들.

그들이 정녕 주님께서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천사들이 아닐까?

주님께서 마태오 복음 25장 14절에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다민족 체제를 받아들여서 다양한 민족들의 문화를 포용하고, 차이점을 인정하고 이해함으로써 형제애를 실천

해야하며, 사회적 시선과 편견, 순혈주의와 단일민족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다민족 사회’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문운성(라파엘)
이주사목 봉사자



입당송 시편 130(129), 3-4 참조

주님, 주님께서 죄악을 살피신다면, 주님, 누가 감당할 수 있으리이까? 이스라엘의 주 하느님, 주님께는 용서가 있나이다.

제1독서 1열왕 5,14-17

회답송 시편 98(97), 1, 2-3, 4(2 참조)

◎ 주님께서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의 구원을 드러내 보이셨도다.

제2독서 2티모 2,8-13

복음 환호송 테살 5,18

◎ 알렐루야.

모든 일에 감사하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너희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이로다.

◎ 알렐루야.

복음 루카 17,11-19

영성체송 시편 34(33), 11 참조

부자들도 궁색해져 굶주리게 되지만, 주님을 찾는 이들에게는 좋은것 하나도 모자라지 않으리라.



● 재속 프란치스코 전주지구 형제회 잔치

재속 프란치스코 전주지구 형제회(회장=황호자 체칠리아, 영적보조=신수영 대건안드레아 작은형제회 사제)는 사부성프란치스코의 대축일을 맞아 윤호관에서 하루 잔치를 가졌다. 평화의 인사에 이어 영보사제의 특강으로 형제들은 영적 양식을 얻었다. 이어 대축일 장엄미사와 일용할 양식인 빵의 나눔, 각 단위 형제회의 장기자랑과 형제애를 다지는 경기로 은총깊은 하루를 보냈다.

|홍보국 정례

● 레지오마리아에 뿌레시디움 간부 교육

전주교구 파티마의 모후 레지아(단장=강상근)는 오룡가난한 이의 모후 꼬미시움(단장=김시연) 산하 뿌레시디움 간부 교육을 '뿌레시디움 간부의 자질과 직책별 활동사항'을 주제로 지난 10월 1일(월) 오룡동 성당(주임=이수현 신부)에서 2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했다.

|김용운 기자

● 신동 성당 신자 제 15차 전국 올드레아 참석



지난 10월 3일(수)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 15차 전국 올드레아에 25명의 신동성당(주임=이사정 신부) 꾸르실리스파들이 다녀왔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요한 16,33)'라는 주제로 열린 제 15차 전국 올드레아는 한국 천주교 꾸르실리오 도입 4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서 대만 가오슝 교구에서 온 약 35명을 포함하여 전국에서 약 17,000여명의 꾸르실리스파들이 참석했다.

|손희정 기자

● 군산지구 병원선교회 군산의료원 선교



군산지구 병원선교회(회장=이정희)는 지난 10월 6일(토) 군산의료원에서 선교활동을 했다. 설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이날은 군산, 전주, 순천 등지에서 모인 20여명이 4개조로 나뉘어 400여 병상을 찾아가서 선교책자와 숲정이 그리고 떡과 야쿠르트를 전하며 '천주교 알리미' 역할을 하였다. 같은 날 오전 6시에 지곡동 성당(주임=김병은 신부)에서 감사미사를 올리고 선교에 앞서 오후 2시에 병원로비에 모여 시작기도와 김병운(베네딕도)신부님의 강복을 받았다.

|김영수, 이미원 기자

● 익산 지구 본당 사회복지분과 지구순회교육

지난 10월 7일(주일)에 교구 사회사목국(국장=장상원 신부)에서 실시하는 익산지구 본당 사회복지분과 지구순회교육이 부송동성당에서 있었다. 익산지구 각 본당의 사회복지분과위원들에게 실시된 교육은 '본당 사회복지 프



로그램 개발과 실천과정 훈련'에 대한 내용으로 사회복지분과위원들이 본당에서 활동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2006년 각 본당의 사회복지활동보고, 지도신부의 강의를 통해 조별로 직접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하였다.

|손희정 기자

김장용 국내산 새우젓 각종 젓갈, 소금 식품, 건어물류

서 해 젓 집

동부 민물 건강원
(각종 중탕 및 과일즙)

삼천동 농협공판장 내
227-8111 / 011-675-0091
염점례(리더)

17년 역사 수맥돌침대

- 공장직판 -

(임응순 신부님 수맥지도)

대표 : 이경복 바오로

전주 1588-5335

김현숙 안과 개원예정

(전 한빛안과 원장)
안성형수술 만명이상 경험
사시 및 소아안과 수술 이천명이상 경험
광채용 아우구스티노 / 김현숙 레지나
개원예정일 10월 27일
Tel (063) 226-1116
전주시 중화산동 본병원 옆 건물
3층·진료실, 4층·수술실, 안경원

고품격 국제결혼

〈베트남·필리핀 등〉 6개국

이종관(도민고)

☎ 016-9612-9380

(063) 241-9380

- 교우부 특별우대 -

〈익산〉한빛정형외과

쾌적한 입원실, 물리치료실

원장 : 김선구(라파엘), 이정미(글라리아)

- 밤 9시까지 야간진료 -

☎ 837-2222~4

(영동동 제일1차 APT)

수맥·수세미죽 참살이 수세미 농원

기관지, 천식, 알레르기비염, 아토피
유기농 재배(온가에서 판매)

박미나(세실리아)

063)255-8090, 010-6536-1117

갯벌의 산삼 상생부안 함초

변비, 다이어트, 아토피, 피부미용
관절염, 당뇨, 각종성인병
먹는화장품이라 불리는
미네랄의 보고 무농약 친환경식물
한혜숙(로사리아)

063-582-4602, 011-9643-0031

http://www.singsingkorea.com

스스로한의원

원장 : 송승현(토마), 최윤미(아가페)

적외선체열진단

운동치료·체형교정클리닉

☎ (063) 254-1075

전주 E마트 아외주차장 앞



● 삼천동 성당 추수감사제 미사와 본당의 날 행사

삼천동 성당(주임=김병환 신부)은 지난 10월 7일(주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추수감사제 미사와 본당의 날 행사를 가졌다. 1부의 교중미사에는 추수감사제 미사로 진행하여 햇곡과 과실을 제단에 쌓아놓고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다. 2부에는 구역별로 점심을 먹은 후 명랑운동회를 펼쳤다. 전구역을 네 팀으로 나누어 초등부 어린이에서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두 참석할 수 있는 게임들을 마련하고, 꾸민 경품을 선물하여 한 가족 된 즐거움을 누렸다.

서영원 기자

● 노송동 성당 건진 성사 및 본당의 날 행사

본당설립 39주년을 기념하면서 노송동 성당에서는 45명에 대한 건진성사가 있었다.

강론 중에 이 병호 주교는 건진성사를 받는 이들이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루카 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 “생선을 달라는 자식에게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으며, 달걀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하면서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 곧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를 암송하기를 당부하셨다. 한편 이 성경구절을 즉석에서 암기해석 발표한 신자들에게 교황 요한바오로 2세께서 축복하신 ‘메달’을 선물하였다. 또한 이날 미사 끝에는 어린양 잔치 성경암송대회에서 1등상을 수상한 김준호군과 사생대회 은상을 차지한 문휘성양을 시상하고 미사 후에 음식나눔잔치가 있었다.

홍보국 정례

● 전주교구 M.E 창설 25주년 기념 워크숍

전주교구 M.E(지도=김정민 가정사목 전담신부)창설 25주년을 맞이해 전주 M.E협의회(대표부부=이건태.김기순)는 부부운동을 위해 봉사하는 지구 및 본당임원들을 위한 워크숍을 지난 10월 3일(수) 새 교구청사에서 가졌다. ‘가정성화’와 ‘부부의 삶’을 위한 예언자적 소명을 잘 깨닫기 위해 마련된 이번 연수는 ‘M.E 영성강화와 본당 쉼의 활성화’를 주제로 부부간 사랑의 편지쓰기와 특강(권이복 신부), 전주 M.E 25주년 약사소개, 2007년 우수본당으로 선정된 지곡성당의 본당모임 사례발표, 미사봉헌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오라, 김영수 기자

● 익산 성모호스피스 교육 개강

익산 성모병원(병원장=유희순 수녀)과 한국 가톨릭 호스피스 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제2회 익산성모호스피스 교육이 장상원 사회사목국장 신부의 개강미사로 시작되었다. 이번 교육은 이달 8일(월)부터 시작하여 31일(수)까지 이어지며 2주간의 이론교육과 1주간의 실습 등 다양한 강의와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조은아 기자

● 삼례 성당 연풍 성지 순례

삼례 성당(주임=김희남 신부)은 지난 10월 7일(주일) 황석두 루가(1811~1866) 성인의 고향인 연풍성지를 순례하였다. 레지오마리아에 옥외행사와 더불어 함께한 이번 행사는 350여명의 신자가 참석하여 순교자의 삶을 통하여 신앙인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주임신부는 성지순례를 통하여 순교성인들의 정신을 깊이 체험하고 우리들도 그 길을 열심히 걸어 갈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길 당부하였다.

최경호 기자

● 국제 결혼가정 가족 캠프

국제결혼가정을 위한 가족캠프가 지난 10월 6일(토)부터 7일(주일)까지 해월리 피정의 집에서 열렸다. ‘사랑해요, 우리 가족’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표현예술과 함께 떠나는 가족여행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다. 주로 필리핀에서 시집 온 새댁과 가족 그리고 봉사자 등 30여명의 참가자들은 노래나 악기 연주, 춤추기, 그림 그리기, 찰흙놀이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억눌리고 감춰진 마음 상태를 자유롭게 표현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홍보국 정례

강성호 피부과

강성호(이나시오) 박민정(루비아)

☎(063)255-8700

롯데백화점 옆

치질·대장 수면 내시경 전문

전주 향원외과

평화동 사거리-중간-한국통신 사거리

원장 전문의 전관희(루가) · 이관재

☎ 228-6002~3

30년 동안 전일관광과 함께 52명의 고마우신 신부님들께서 32개 나라, 98개 도시의 성지를 뜻 깊고 보람있는 순례가 되도록 지도해 주셨습니다. 믿음과 은총의 땅에서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며 소중한 신앙을 체험하고, 가슴 설레는 추억을 남길 성지순례를 떠나시지 않았습니까? 전일관광은 70개 나라, 22개 도시로 해외여행을 안내하며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일관광(063) 288-6666 조선(안토니오)

이전개업(구 '칸보석')

보석전문점 헤르세

이동주(도비아) 박영실(헤레나)

서신동 호남문고 맞은편

063)275-0076 / 011)9215-9900

비만·비염 학습클리닉

지곡 부부 한의원

원장: 양성복(가브라엘) 봉광숙(세실리아)

문의: 063-468-7511

금산시 나운동 롯데 4차 APT 건너편

제주관광안내

제주교구 운전기사 사도회에서는

관광 및 성지를 안내

차량·호텔·펜션 예약 가능

☎(064)758-6476 H·P 010-4566-6476

해외 파견선교사를 위한 교육

10차 : 2008. 1.3(목)~31(목)

11차 : 2008. 6.3(화)~30(월)

대상 : 해외로 파견되는 선교사,

교포사목자

문의 : 02-953-0613

www.missionedu.com

순교의 얼을 기리며 더

♣ 꿈나무들과 함께 꿈이 익어가는 공동체

고창은 산 좋고 물 맑은 천혜의 자연조건을 지니고 있는 아름다운 고장이다. 가을 정취가 흐르는 코스모스 들길을 따라 고창성당에 들어서니 아담한 본당 건물과 잘 가꾸어진 주변경관이 평화로움을 선사한다. 그리고 성당 바로 곁에는 부속 '샬렐 유치원'과 놀이시설이 있어서 고요속의 생기를 품어낸다. 주말에 찾아간 성당에는 많은 아이들의 재잘거림과 웃음소리가 생동감과 꿈이 있는 공동체임을 드러낸다. 샬렐 유치원에는 현재 100명의 원생들이 있고 한 분 수녀와 6명의 교사가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유치원 자모들은 성당을 오가며 자연스레 신앙을 찾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꿈나무들을 통해 선교의 꿈을 이루는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

♣ 고창 성당의 발자취

고창지역에 천주교 신자들이 모여 신앙공동체를 형성하고 공소를 이룬 것은 1882년 신수동 공소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1937년 전주교구가 설립되면서 고창지방이 정읍본당으로 소속되고 1948년 정읍 본당 관할 고창공소가 탄생하였다. 그리고 1960년 3월 고창본당이 설립되기에 이르렀다. 2년 뒤 고창본당과 오랜 인연을 맺었던 벨기에 출신 사제 배 영근(한국 명) 요셉신부의 취임으로 본당은 성전건축의 꿈을 이룰 수 있었다. 배 신부는 언어와 음식의 차이 등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고국의 부모와 지인들에게 원조를 청하고 간척사업 등을 펼치며 1967년 낙후한 고창지역에 성전을 건축하기에 이르렀다. 오토바이를 타고 공소를 누비던 배신부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고 이면우 사목회장은 그 시절을 회상한다. 지금은 신자 수 1943명(18구역 22반)의 고창지역 유일한 본당이지만 이 지역에는 뿌리 깊은 유교사상과 무속 신앙, 타 종교의 성행 등 사목에 여러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선교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이 많았지만 2002년 고창본당에 본격적으로 불기 시작한 선교의 바람은 그해 본당을 교구 최우수 선교본당으로 만들었다. 본당 공동체는 현재 1년에 3차례의 세례식을 통해 꾸준히 새 신자들이 신앙을 찾아 나서고 있다.

♣ 거룩한 독서를 통한 말씀의 생활화

늘 인자한 미소가 입가에 떠나지 않는 김의철 주임신부. 3년 전에 취임한 김신부는 '말씀으로 새로 나아 한다.'고 생각하고



숙한 공동체를 향하여



‘거룩한 독서’를 신자들에게 적극 권장하였다. 소그룹 말씀 나누기인 ‘거룩한 독서’는 모두 8개 팀으로 편성되어 있다. 말씀의 식탁에서 영적 양식을 풍부하게 얻으며 3년간의 전 과정을 최초로 마친 바오로 팀은 지난 9월 신부님께 성경책을 선물 받고 단합 대회로 야유회를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김 신부는 앞으로 모임의 조직력과 관리부분을 보완하여 많은 신자들이 말씀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경력과 열성으로 다져진 초등부 어머니 교사들

매주 토요일 오후면 60~70명의 적지 않은 초등부 어린이들로 성당이 활기를 되찾는다. 오랜 경력과 열성을 바탕으로 아이들과 함께 하는 어머니 교사들이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어머니 교사들은 직장을 가진 1인2역의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하느님의 일을 우선순위로 두기에 많게는 20년 적게는 3년씩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있다. 지역의 특성상 젊은이들이 빠져나간 빈자리를 어머니들이 그들 못지않게 성실히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어머니 교사들은 ‘가르치는 일이 곧 배우는 일’임을 늘 깨닫게 되어 직분에 감사하게 된다고 입을 모은다. 최금해 주일학교 교감은 늘 자상하게 교사들을 격려하는 주임신부의 외유내강을 자랑한다.

♣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기

고창본당은 지역의 사회복지 시설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나환우들의 보금자리인 ‘동혜원 공소’, 무의탁노인복지시설인 ‘야고바의 집’, ‘독거노인의 집’, 청소년 아동 복지시설인 ‘고창 어린이 집’, 지역 복지 시설인 ‘고창 자활 후원 기관’, 이주민 여성들을 위한 ‘다솜의 집’ 등에서 수녀들과 본당 신자들은 사랑의 손길을 펴고 있다. 또한 2001년 공소가 설립된 성두 군인 부대에서는 매주 15명 정도의 군인들이 미사에 참여하고 있다. 본당에서는 이들을 성당으로 실어오고 데려다 주며 점심을 제공하는 등 따뜻한 형제애를 실천하고 있다.

♣ 최여겸 순교지 개갑장터 성지개발 적극 추진

고창본당은 ‘성지조성’이라는 큰 숙제를 안고 있다. 고창지역에 신앙의 씨앗을 뿌린 순교자 최여겸의 순교정신을 드높이고 열을 계승 발전하여 순례객과 역사문화 탐방객들이 찾아올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최여겸이 처형당하고 초반 호남지역 선교거점역할을 했던 개갑장터(고창군 공음면 석교리 198번지 일대)를 가톨릭 순교성지로 개발하는 일을 계획하고 있다. 최여겸 순교지 개발계획은 2002년 8월 개발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2년 뒤 개갑장터가 고창군 향토문화 유산 제1호로 지정되어 토지매입과 표지판설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금년 3월 현양사업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성지 조성을 위한 신자헌금 모금과 후원회원 모집 등 구체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본당 공동체는 이러한 큰 과제들을 하느님 말씀의 토대위에 굳건히 서서 슬기롭게 헤쳐 나가고 있다. 맑고 푸르른 산야만큼 신자들이 순수하고 봉헌 정신이 투철한 고창 본당은 순교자의 거룩한 열을 기리며 더욱 성숙한 공동체로 나아가고 있다.

취재 : 오안라 · 신현숙 기자, 사진 : 김영수 기자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학교 실습생들이 전북대학 병원에서 실습(왼쪽)과 교육을 받고 있다.

뿌듯하고 기쁜 봉사 체험의 장

지난 10월 9일 오전 9시 30분 전북대학병원에 한두 분씩 속속 모여들기 시작했다. 일주일간 병원봉사 실습을 위해 모이는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학교 분들이다. 김영신(바오로) 원목신부는 “어렵고 힘든 자리에 왔다 생각하지 말고, 어렵고 힘든 자리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고 생각하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실습에 임해 주기를 바란다.”며 당부의 말을 전한다. 다함께 기도를 바치고 선배 봉사자들과 함께 병실로 흩어졌다. 팀별로 담당구역의 병실을 돌며 환자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도움의 손길을 펼치고 다시 모이는 발걸음은 웬지 오전보다 더 즐겁고 자신감 있는 걸음이었다. 느낀 점을 나누는 시간, 동산동 성당의 최옥선(세실리아) 실습생은 “하면 할수록 환자를 대한다는 것은 갑작스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꼭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며 더 깊이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서신동 성당의 정미숙(엘리사벳) 실습생은 오늘 응급실에 있었는데 내가 필요한 곳이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낀 하루였다고. 또한 효자동 성당의 이현순(요안나) 실습생은 어제는 무거운 발걸음이었었는데 오늘은 가볍고 웃는 얼굴로 다가가게 되었다면서 그러니 자신감도 생기기도 훨씬 좋았다고 한다. 역시 봉사에 임하는 자세는 감사와 기쁨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다고 한다.

‘배워서 남 주랴’ 라는 말이 있다. 뭔가를 배우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라는 것, 그리고 그 배움의 수혜자는 결국 자신일 것이라는 말이 아닐까. 그런데 정말 남 주기 위해 배우는 사람들이 있다. 뜬금없이 뭐 소리냐고 물으신다면 바로 이날 실습현장에서 만난 자원봉사자 학

교에서 배우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대답할 수 있다.

전주교구의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학교는 올해로 벌써 13기로 그 역사를 살펴보면, 자원봉사자의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 포괄적인 교육을 했던 해도 있지만, 노인복지 분야처럼 한 분야를 파고들었던 해도 있다. 올해는 호스피스 교육에 대해 집중적으로 배우고 있다. 강사진만 보더라도 한국 가톨릭 호스피스 협회장 김혜자 수녀를 비롯해 15여명의 호스피스 분야 전문 강사들이고, 교육내용도 암의 예방과 조기발견, 호스피스 대상자에 대한 사전지식과 관리방법, 호스피스 봉사자의 역할과 자세, 생명윤리에 이르기까지 현장에서 꼭 필요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이뿐 아니다. 올해 호스피스 교육은 아무리 많은 이론으로 무장했다 하더라도 막상 현장에서의 경험이 없으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교육기간 동안 8시간의 실습을 채워야 한다. 이것은 전주교구의 자원봉사자 교육이 단지 피상적인 교육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 투입되어 실제적인 역할을 담당해내는 봉사자를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실습을 마친 학생들에게 원목신 신부는 내가 뭔가를 선택했다고 여기지 말고 하느님께서 나를 이곳, 이 자리로 보내셨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당부했다. 그렇다. 배워서 남 주는 일도 내 뜻대로가 아니었던 것이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적재적소에 보내기 원하시는 하느님의 섭리 안에 계시는 분들일 것이다. 이제 바라야 할 것은 교육을 통해, 실습을 통해 하느님의 부르심에 예로 응답한 많은 분들이 그들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여러 곳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그 봉사의 일이 그들 삶 속에 감사로 녹아나는 일일 것이다.

취재 | 김동욱 기자

영화 속의 천사들, '육체의 소중함' 느껴

서석희 홍보국장 신부



1990년대 중반 이후, 천사들이 주연으로 나오는 영화들이 연달아 나온 적이 있었다. 1996년도에 개봉된 영화, <마이클 (Michael, 1996)>은 인간세계에 휴가를 나온 미카엘 대천사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로, 영화 속에서 미카엘 대천사는 평범한 인간들이 너무 익숙해서 평범하게 여기는 일상적인 삶, 먹고 마시는 것을 부러워한다. 어느 날 그는 두 손을 활짝 펴고 불어오는 바람을 끌어안으며, 그 느낌에 행복해하며 외친다. “이렇게 바람의 체온을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인간의 삶은 얼마나 행복한가!” 한편 영겁의 세월을 천사로 살면서 인간세계를 지켜보는 것보다, 일회적인 인생을 살더라도 육체를 통해 맛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

고 싶어 하는 천사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시티 오브 엔젤 (City Of Angels, 1998)>이 1998년도에 개봉되었다. 같은 해에 <조 블랙의 사랑 (Meet Joe Black, 1998)>이라는 영화도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영화 속에 나오는 조 블랙이라는 이름의 천사도, 수천 년 동안 육체가 없는 영적 존재로서 늘 지켜보았던 인간들의 사랑이 도대체 어떠한 느낌인지를, 그것이 비록 아픔일지라도 인간의 몸을 통해 느끼고 싶어 한다는 내용의 영화이다. 어찌 보면 이들 영화의 분위기나 내용은 각각 전혀 다른 이야기구조로 되어있는 것 같지만, 우연치 않게 서로 비슷한 시기에 나온 이들 영화들은 한 가지 공통된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영화 속의 천사들은 인간이 지닌 육체를 부러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왜 그럴까? 인간이 천사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인간은 결코 반복되지 않는 일회적인 삶을 살고 육체를 지닌 반면, 천사들은 영겁의 세월을 살면서, 늘 인간세계를 지켜보면서 인간생활 전반에 대해 알만큼은 알지만, 육체가 없어 구체적으로 가장 원초적인 배고픔이 뭐고, 맛있음이 무엇인지를, 사람의 아픔과 행복이 뭔지에 대한 그 느낌(?)을 모른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 느낌을 알고 싶어 인간의 삶에 끼어든다는 것이 영화의 공통된 메시지이다. 시편 8장에 보면, “천사들보다는 못하게 만들었어도”라는 시인의 찬미와는 달리 이제 ‘천사들도 인간을 부러워 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 영화들의 메시지이다. 바로 인간은 육체를 지니고 있고, 그로해서 인간은 육체를 통해 그 느낌과 체험을 서로 공유할 수 있고 깊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영화들의 메시지는 2004년 개봉된 영화, <그리스도의 수난(Passion of Christ)>에서 그 절정을 이룬다. 이 영화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수난을 객관적으로 다룬 여느 영화들과는 달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보편적 삶의 현실인 육체를 지니셨다는 사실과 그 육체의 수난과 고통을 통해 인간을 구원했다는 것을 자세하면서도 아주 강하게 보여주면서 관객들과 주관적으로 그 고통의 느낌을 공유하고자 한다. 온 몸으로 사랑을 고백하고, 그 고백에 전율하길 관객에게 바라고 있다. 시에나의 성녀 가타리나께서 남긴 저서 <하느님의 섭리에 대한 대화집>에서 성녀는 하느님에 대한 그녀의 체험을 “나는 맛보고 또 보았습니다. 오 영원한 하느님이시여... 당신은 당신의 끝없는 심연 속에서 영혼을 채워주실 때, 영혼이 언제나 당신을 찾아 배고파하고 또 목말라 하며, 당신의 빛 안에서 빛이신 당신을 보는 것을 갈망하게끔 채워주십니다.”

천사들이 인간을 부러워한다. 비록 영화지만,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인간은 일회적인 삶을 살지만, 육체가 있기에 위대하고 소중하다. 왜냐하면 육체가 있기에 우리는 하느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예수께서는 그 육체를 통해 우리 인간과 만나셨기 때문이다. 그분을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타리나 성녀의 체험처럼 놀랍고 신비로운 것이다. 우리가 지닌 육체의 소중함을 묵상해볼 수 있는 영화가 있다면, 앞의 영화들을 추천하고 싶다. 단지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우리 시대에 우리가 지닌 육체가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묵상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교구장 일정

- 성지순례 아시아대회
10월 15일(월)~18일(목) 일본
- 프랑수아 LUCON 교구 주교님, 신자 방문미사
10월 20일(토) 천호성지
- 견진
10월 21일(주일) 오전 10시 30분 복자
- 소룡동 성당 가공식
10월 21일(주일)

미사 · 행사 · 모임

- 교육국 자모회 월례미사
10월 15일(월) 센터
- 교구 사회복지위원회 사랑의 다리
익산 월례미사
10월 15일(월) 오전 10시 30분
- 제 13기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학교
10월 15일(월) 오후 1시 전동
- 가정성화를 위한 계절강좌 3차
10월 16일(화), 23일(화), 30일(화)
오전 10시~12시 30분 센터 3층
대상 : 일반신자
주제 : 1일-분노감정 다루기
2일-용서, 자기용서
3일-사랑, 자기 사랑
강사 : 김정민 신부(가정사목)
참가비 : 1인당 3만원
마감 : 10월 9일(화)
신청 및 문의 : 285-0041(가정사목)
FAX : 285-0049
※ 개별적으로 신청서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사무실, 사목국 홈페이지
(www.jjsamok.com)

- 전주 시청 토사리교회 미사
10월 16일(화) 오후 6시 40분
- 사제아버지회 성지 순례
10월 16일(화) 전동성당(9시 출발)
장소 : 홍성 성지

- 전북 가톨릭사진가회 정기출사
10월 21일(주일) 오전 7시 출발 교구청
- 재무평의회
10월 17일(수) 오후 2시 교구청
- 현대자동차 사우회 미사
10월 18일(목) 낮 12시
- M. E. 협의회 제7차 쇄신주말
10월 20일(토)~21일(주일)
장소 : 천호 피정의 집
문의 : 011-657-6538 채왕석
011-9644-6538 박호선
-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
10월 21일(주일)

- 익산 하나회 미사
10월 21일(주일) 오후 2시 부송동
- 루갈다 초남이(시집 온 날) 기념미사
10월 30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 미사-생가터, 성체강복-교리당
주례 : 이병호 주교
버스운행 : 오전 9시, 10시-덕진 성당 앞
문의 : 214-5004, 011-674-1711
- 초남이성지 미사
매일 오전 10시 30분(토-오후 3시)
단체순례 : 봉고 버스 봉사, 식사(5천원)
문의 : 214-5004, 011-674-1711
- 제 4회 인보성체수도회(가을의 기도)
10월 26일(금) 오후 7시 30분
주제 :
우리의 생명과 행복을 나누게 하소서
대상 : 음악으로 기도하고픈 젊은이와
신자들

교육 · 피정 · 연수

- 레지오 단원 교육
10월 15일(월) 인후동
- 새 사제 연수
10월 18일(목) 오전 10시 센터
- 신학생 부모 피정
10월 20일(토)~21일(주일) 나바위

- 44차 직장인 창세기 연수
10월 16일(화) 센터
10월 18일(목) 센터
10월 20일(토)~21일(주일) 해월리
- 목주기도 성월 피정
10월 16일(화) 오전 9시 30분 송천동
강사 : 나광열 신부 / 참가비 : 5천원
주제 : 빛이 생겨라(창세 1,3)
- 호스피스 교육
10월 30일~11월 21일(매주 화·수)
장소 : 남원의료원 대강당 오후 7시
교육비 : 2만원(사전등록 10월 26일까지)
2만5천원(당일 등록)
문의 : 620-1375, 1233, 1197

기타

- 군장대학 사회복지계열 가톨릭반
2008학년도 교육생 모집
원서교부 및 접수 : 10월 1일~11월 3일
j catholic.or.kr에서 다운로드 바람
문의 : 284-5290, 285-0041
- 윤양호신부 영성의 향기 평화 방송 방영
10월 17일~29일
수요일-오전 9시, 목요일-새벽 3시, 오후 4시,
일요일-오후 1시, 월요일- 밤 11시
주제 : 신비가 줄리앙의 생애와 영성,
십자가의 베네딕타 수녀의 십자가 사랑

새 가톨릭센터
특별 신축현금(9/16~10/6)

이형수 신부(1,000,000)

소프라노 박양숙 리사이틀



일시 : 10월 19일(금)
오후 7시 30분
장소 :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명인홀
주제 : 삶, 사랑 그리고 죽음

대학병원 봉사자 모집

기간 : 11월 1일~15일
접수처 : 대학병원 가톨릭 원목실
(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
자격 : 호스피스 교육수료자 및 교구봉사자
교육수료자, 이·미용 자격증 소지자
연령 : 남, 여 만 60세 이하
* 단 공필실 봉사자는 자격 및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

전주교구 성령대회

일시 : 10월 22일(금), 오전 9시~오후 6시
장소 :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 대공연장
강사 : 차동업 노르베르도 신부
파견미사 : 이병호 주교
주최 : 전주교구 성령새신 봉사회

씨튼 영성의 집
직원 모집

대상 : 관리장, 상주 가능
서류 : 이력서, 자기 소개서
문의 : 041-733-2992~4

마동 성당 사무장
채용 공고

자격 : 영세받은지 3년이상, 컴퓨터
(한글, 엑셀, 인터넷) 활용 가능자
제출서류 : 자필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주민등록 등본 1통
문의 : 842-6828(성당 사무실)

서울 성가소비녀회
성소모임

일시 : 셋째주일 오후 3시
장소 : 효자동 성당 수녀원
문의 : 063-223-3822

가정성화를 위한 꽃동네 성령 피정

일시 : 11월 17일(토) 오전 11시~18일 오후 4시
장소 : 음성꽃동네 사랑의 연수원 중강당
대상 : 가정성화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분
가정분화로 고통받는 부부·부모자식·고부간
내적·외적·영적 치유를 원하시는 분
회비 : 일반원(어린이 동반금지)
문의 : 011-490-5345

마리아 남자수도회 (마리아니스트)
성소 모임

대상 : 수도생활에 관심 있는 자
담당 : 김일영(프란치스코) 신부
문의 : 080-749-8547

예수성심전교수녀회
마음의 피정

주제 : 마음의 기도(회비 15,000)
일시 : 10월 6일~7일 부산 본원
문의 : 051-581-3104~5, 011-9330-3104

◆ 대상 - 운문 ◆

신부님 강론

신태인성당 유치부 김민영(세실리아)

우리 신부님은
강론을 잘해요
민영이가 강론을
알아들어요.

민영이가 강론을
아빠에게 이야기해요.
아빠는 환하게 웃습니다.

◆ 금상 - 산문 ◆

나의 주일학교

화산동 성당 5학년 원동훈(스테파노)

나에게는 새로운 월요일이 시작되면 기다려지는 하루가 있다. 예수님을 만나러 자전거의 페달을 뽕뽕 구르며 달려 가는 그곳이 있다.

우선 그곳에 들어서면 하얀 울타리 사이로 한들한들 피어있는 코스모스가 아름다운 색깔로 나를 반기고 뜰로 들어서면 성모동산에서 항상 인자하신 모습으로 나를 내려다보시는 성모님의 미소가 내 마음을 부풀게 한다.

또 성전 입구에 높이 솟아 두 팔을 벌려 어서오라고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떨리게 한다.

이렇게 내가 기다리는 나의 주일학교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화산동 성당에서 성모님,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다.

우선 나는 교리실로 발걸음을 향한다. 그곳에서는 선생님과 친구들이 성서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이 문득 띈다. 나는 이렇게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있다. 지금부터 예수님에 대해 느낀 것을 쓰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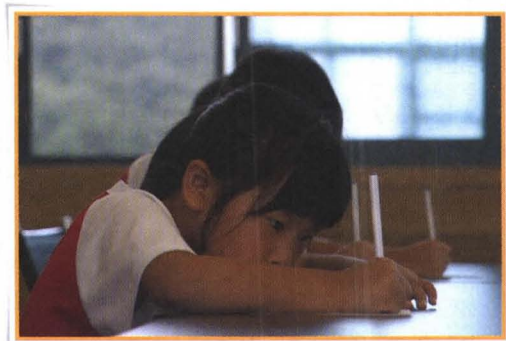
예수님의 이름은 사랑이다. 어느 어두 퍽퍽한 곳에 가더라도 두 팔을 벌려 감싸주며 나의 발걸음을 환한 곳으로 인도해주신다.

예수님의 이름은 희망이다. 나의 마음 속에서 빛을 내며 날아다니는 나비같이 나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희망이 샘솟는다.

이렇게 나의 가슴 속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주일 학교의 덕이다.

이렇게 나의 주일학교 생활은 5년째로 접어들고 있다.

난 커서도 이 경험을 잊기 어려울 것이다.



어린이 잔치에서 백일장 글짓기(왼쪽)와 사생대회 그림 그리기에 몰두하고 있는 어린이들. <사진 | 홍보국 제공>

임순남 · 무진장 지구 본당 소식

도통동

주임신부: 625-0091 사무실: 631-0091 주임신부: 김 의택
F A X: 633-0081 수녀원: 635-0091 서목회장: 김 기정

- ⑩ 10월은 전교의 달 - 선교합시다! 예비신자입교식 28일(주일)
- ⑨ 금주 구역상경 쓰기: 집회서 50장~음기 3장 10절
- ⑧ 감사: 제17주년 본당의 날에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께!
- ⑦ 초등부 주일학교 은총시장: 27일(토) 후2시 성당
- 1. 오늘 ① 제 17주년 본당의 날(서진영과 강당) 전 10시, 저녁미사 없음
② 안수녀님, 권수녀님 영명축하식
- 2. 금주 ① 소공동체 미사 17일(수) 후 7:30 부영1반
② 제대회 19일(금) 후 2시
- 3. 감사헌금: 신철아 5만
- 4. 성전신축금: 배강민 300만, 적금만기(양경란 200만, 오상철 100만)
- 5. 차주 ① 전교주일 2차헌금 ② 제대회비 납부의 날
③ 안나희, 아가페회, 대견회
- 지난주 봉헌금: 1,029,000원 ■ 교무금: 1,590,000원

무 주

주임신부: 322-2308 사무실: 324-0655 주임신부: 이 성 용
유 지 원: 324-3555 수녀원: 322-2399 서목회장: 김 원태

- ⑩ 성서읽기: 10월 셋째주간 애가사1장~5장
- ⑨ 2008년도 달력봉헌(광고)하실분 사무실에 신청하세요
- ⑧ 성지순례: 11월4일(일)-사무실에 신청하세요(참가비10,000원)
- ⑦ 차주미사 안내 단체-구역반장, 공소회장(9시50분)
- ⑥ 성당청소: 10월20일(토) - 윤교, 측산반
- 1. 모임 ① 반장모임: 교동미사 후 ② 축전초배회: 10월19일(금) 10시30분
- 2. 금주전례: 해설-이명숙, 독서-이의인, 김영애,
봉헌-강금자,문금숙, 기도-이관승,박정분
- 3. 차주전례: 해설-권병남, 독서-최해관 부부
봉헌-전순이, 조미자, 기도-이의인, 김영애
- 지난주 봉헌금: 634,000원 ■ 교무금: 1,054,000원

순 창

주임신부: 653-1004 사무실: 652-1004 주임신부: 송 은 석
F A X: 653-0414 수녀원: 653-3135 서목회장: 장 은 열
홈페이지: <http://cafe.naver.com/6521004>

- ⑩ 다음 주일은 전교주일 2차헌금 있습니다.
- ⑨ 금주 구역미사-19일(금)후7시30분 7구역
- 1. 금주모임: 여성분과, 율트레아-미사 후, 애령회-16(화)11시
성모회-17(수)미사 후
- 2. 차주모임: 테레사회, 대견회, 요셉회-미사 후
- 3. 청소: 금주-사랑하을 어머니, 차주-평화의 모후
- 4. 차량봉사: 오용호 정준일, 차주-이우철 김호
- 5. 감사헌금: 유향순(스텔라), 김봉이(울리안나)-감사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838,150원 ■ 교무금: 1,195,000원
- 2차헌금: 429,300원

쌍교동

주임신부: 633-1004 사무실: 633-4004 주임신부: 박 성 팔
유 지 원: 633-4006 수녀원: 626-1004 서목회장: 양영순
홈페이지: <http://www.ssangkyo.org>

- ⑩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루카 17, 19)
- 1. 예비자 교리반 시작: 21일(일) 오전 9시 30분
※ 한 사람씩 인도바랍니다.
- 2. 병자봉성체: 18일(목) 후 2시
※ 환자가 있는 가정은 사무실에 신청바람
- 3. 선교를 위한 북주기도 100만다 봉헌운동: 현재 883,020단
- 4. 박세실리아 수녀님 휴가: 15일(월)~22일(화)까지
※ 영육간의 건강을 바랍니다
- 5. 센터 신축헌금 현황: 162,134,000원 납입액-136,763,000원
※ 센터 신축헌금 완납자(하정, 한시): 정태식 36만, 천명길 15만
김정순 15만, 차상호 36만, 최해원 30만, 권정순 24만, 김정애 15만
박순림 100만, 이상수 300만, 이종희 180만, 최봉길 20만, 하경자 9만
- 6. 영화상영: 21일(일) 후 1시, 체육-기독교 오보 해본, 장소-구역교회
- 7. 감사헌금: 이기방 - 10만2천 오영숙 - 5만
- 지난주 봉헌금: 2,000,320원 ■ 교무금: 4,459,000원

진 안

주임신부: 433-0750 사무실: 433-2541 주임신부: 정 석 수
F A X: 433-7599 수녀원: 433-1531 서목회장: 구 동 수
연락통화: 433-3177 유 지 원: 433-2293

- 1. 금주 ① 14일(오늘) 미사 후 이명서 베드로회
② 15일(월) 전9:00 산행-백운동
③ 16일(화) 전10시 성모회
④ 18일(성무자복음사가축일) 새벽미사, 후7시 군상미방문 가정방문
⑤ 20일(토) 미사 후 만나회, 후8시 어른동미사
- 2. 차주 ① 21일(일) 전교주일헌금, 12시30분 혼배 이정식(마태오), 최하나

※ 인터넷 주소창에 교구나 성당 이름만 치세요! 예) <http://전주교구> 또는 <http://순창성당>

오 수

주임신부: 644-9386 사무실: 642-6319 주임신부: 서 광 석
F A X: 642-6319 서목회장: 변 종 섭

- 1. 본당발전과 선교활성화를 위한 목주기도 누계: 213,050단
- 2. 성서를 통독 합니다.
- 3. 예비자 교리 신청 받습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4. 10/16(화) 오후 8시 사목회 있습니다.
- 5. 금주전례: 해설 - 문판이, 독서 - 황일주, 신광일
- 6. 차량봉사: 변홍섭형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 7. 차주전례: 해설 - 조경희, 독서 - 김진태, 박춘향
- 8. 차량봉사: 김옥기형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임 실

주임신부: 643-3661 사무실: 642-2164 주임신부: 박 종 중
F A X: 642-2164 수녀원: 643-3660 서목회장: 노 제 진

- 1. 공소미사: 강덕-14일(일)후, 12시30분(쑥공장)
- 2. 구역미사: 19일(금)-청용(강경희의 마리아 댁, 후, 7시)
※ 10월 28일: 본당의 날 행사
- 3. 감사헌금: 문명숙 5만원, 유문중 5만원, 김양순 2만원, 이기호 10만원
- 4. 50주년 기금: 김동만 100만원, 김금주 20만원, 이영철 10만원,
안도이 10만원, 신부님 100만원
※ 누계: 79,194,131원 지출: 93,922,119원 잔고: -14,727,988원
- 5. 모임 ① 바로로회-오늘 미사 후, 분도관
② 구역모임: 12일(수)-임실1, 3, 6, 13일(목)-임실2, 4, 5
- 6. 청소년 담담구역 ① 오늘-성수 ② 19일(금)-임실2,4 ③ 21일(일)-신평
- 7. 차주전례 ① 해설-임덕자 ② 독서-이창호, 김진호 ③ 봉헌-임옥주 부부
- 지난주 봉헌금: 781,100원 ■ 교무금: 1,422,000원
- 군인주일 2차헌금: 235,000원

장 계

주임신부: 353-0610 사무실: 351-0111 주임신부: 엄 기 봉
F A X: 351-0606 수녀원: 353-0611 서목회장: 이상화

- ⑩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 1. 성지순례: 19일(금) 아침 8시 30분에 출발합니다.
- 2. 미사시간 변경안내: 월요일 아침 6시30분 미사를 오전10시 미사로
※ 토요일 오후7시 30분 종교상 및 특전미사를 오후 6시 미사로(20일부터)
- 3. 본당의 날 및 추수감사미사: 10월 28일(일)
※ 한 해 동안 베풀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 4. 병자봉성체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 5. 금주모임: 율트레아(18일/목)
- 6. 전례봉사 ① 금주-안정례, 김제일, 안옥선, 김성빈, 정교문
② 차주-정진주, 김성빈, 주점숙, 이봉희, 구경창
- 지난주 봉헌금: 665,800원 ■ 교무금: 725,000원
- 2차헌금: 217,400원

장 수

주임신부: 351-8888 사무실: 351-2264 주임신부: 장 진 봉
F A X: 351-5226 수녀원: 351-1228 서목회장: 박 동 표

- ⑩ 수고하셨습니다. - 강뒸다수녀님
- ⑨ 감사합니다 - 장례용품 기증(하정준 임마누엘, 이행순 사비나)
- ⑧ 2008년도 성당달력 광고 신청: 사무실
- ⑦ 구역미사 - 17일(수) 1구역, 18일(목) 5구역
- 1. 차주공소미사: 상동
- 2. 금주참여공소: 반암, 차주-수분
- 3. 금주전례: 장요섭, 차주-김원순
- 4. 금주독서: 정원수, 최원수, 차주-장양섭, 임진숙
- 5. 금주봉헌: 장재주, 최임주, 차주-이승하, 이옥주
- 6. 금주차량봉사: 김철수, 차주-정원수
- 지난주 봉헌금: 383,600원 ■ 교무금: 270,000원

- ② 22일(월)~31일까지 데레사 수녀님 피정
- ③ 23일(화) 병자영성체(본당, 공소)
- ④ 24일(수) 병자영성체(병원, 요양원)
- ⑤ 25일(목) 새벽미사, 후7시 군하미방문 가정방문
- 지난주 봉헌금: 846,000원 ■ 교무금: 1,460,000원